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육성방향과 과제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강승진

1. 서론

세계는 지금 1차 산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1차 산업의 환경변화로, 먼저 지구 온난화의 심화 등 기후변화와 자연자원 및 에너지 고갈이 환경변화의 주요한 요인이다. 최근 가격과 양 중심에서 건강과 영양 그리고 안전성 중심으로 1차 산물의 가치가 변화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BT·IT·NT 등 과학기술과의 융·복합화도 1차 산업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이다. 더불어 아시아 신흥시장의 부상을 들 수 있다. 이는 향후 20년 내에 세계 식량수요가 2배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경쟁의 심화를 예견케 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 및 다문화 사회의 확산 등 인구구조의 변화도 1차 산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같은 환경변화는 1차 산업의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고 있다. 단순히 1차 산업 내에서의 발전전략에서 벗어나 2차 산업과 3차 산업과의 융·복합화를 통한 6차 산업화가 모색되고 있다. 또한 소규모 다품목 복합영농에서 규모화·자동화·전문화·계열화가 요구되는 한편, 수량증대를 위한 생산기술 중심에서 생산·가공·유통·마케팅의 패키지 기술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유통 측면에서는 도매·재

래시장 중심에서 대형유통 및 전자직거래와 수출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소비 측면에서는 가격·수량 중심에서 맛·기능성·안전성 등 고품질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제주지역의 1차 산업에도 새로운 대응방안의 창출과 실천이 요구된다 하겠다. 여기서 우리는 향토자원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성장산업의 육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제주지역은 청정한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으며 8천여 종의 다양한 생물자원, 물, 청정 농·수·축산물, 바람 등 활용가능한 다양한 향토자원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토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5대 성장산업으로 식품산업, 한방·바이오 융합산업, 물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과 이들을 브랜드화하는 프랜차이즈화산업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청정 농수축산물 생산의 토대가 될 뿐 아니라, 이를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과 기회라 하겠다.

2. 향토자원 성장산업 육성방향

제주지역의 1차 산업은 대부분 1차 생산과 가공에 편중되어 취약한 산업구조와 기술력, 인력 등 핵심역량 미흡으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해 생산비용만 증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이 지니고 있는 향토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주목할 만한 향토자원으로는 먼저 제주 지하수를 꼽을 수 있다. 이미 제주 지하수는 수질의 우수성이 규명되었으며, 제주삼다수 생산·판매로 국내외에서 그 입지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이에 제주 지하수를 세계적인 프리미엄 브랜드로 키워내는 물산업 육성 전략이 요구된다. 이는 물이 곧 돈이 되는 블루골드(Blue Gold) 시대에 진입했다는 점과 제주지역이 국내 최고의 다우지역이라는 특성에도 부합한다고 하겠다.

제주지역의 청정 1차 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도 지역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 및 웰빙·로하스트렌드의 확산으로 건강증진·장수와 질병예방을 위한 기능성 식품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제주 지역의 대부분 농가 생산물은 원물출하 및 단순세척 가공 중심이며, 대량생산으로 인한 가격경쟁 저하, 불규칙한 생산량 등으로 농가소득이 불안정한 실정이다. 따라서 식품산업을 고부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수·축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래 삶의 질을 보장하는 환경 친화적 산업이면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방·바이오 융합산업도 제주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향토자원 특성에 비추어 성장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국내 한의약 관련 시장규모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한의약 R&D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그 발전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산업도 풍부한 바람, 태양, 바이오, 해양, 수자원, 지열 등 제주지역의 자연환경을 살려 자원화 할 수 있는 성장산업이라 하겠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 등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환경보전 과도 직결될 뿐 아니라, 제주지역의 에너지 수급실태에 비추어 육성이 시급한 분야라 할 수 있다.

끝으로, 제주산 농수축산물을 활용한 프랜차이즈 산업의 육성이 요구된다. 제주지역의 특산물을 경쟁력 있는 브랜드상품으로 개발하여 국내외 시장에 진출함은 물론, 공동브랜드 및 민간브랜드 프랜차이즈 산업화로 제주지역 특산물의 마케팅 강화와 판로 개척,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효과를 올릴 수 있다.

제주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한 이러한 산업들을 5대 성장산업으로 상정하고 그에 따른 육성과제를 각각 검토한다.

3.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육성과제

가. 식품산업

제주지역은 풍부한 무공해 청정 농수산물을 소재로 하거나 650만명 이상의 제주방문객을 대상으로 식품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몸국, 돔베고기, 빙떡, 물회 등 특색 있는 웰빙 향토식품과 젓갈류 등 전통식품이 있으며, 세계적인 관광지로 안전하면서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를 개발해 나갈 수 있어 식품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이러한 식품산업 육성은 제주지역 농가소득 증대와 농수축산물의 수급안정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제고시키는 효과를 높이지만, 이를 극대화·산업화하기 위해서는 인삼이 생산되지 않은 스위스에서 ‘긴사나’라는 인삼 원료 강장제 덕분에 인삼가공식품 수출 세계1위 국가 사례와 같이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를 위한 과제로, 먼저 고부가 기능성식품 개발전략이 필요하다. 즉, 식품원료에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높인 기능성식품의 개발,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 향후 전개될 미래 트렌드에 맞춘 식품 개발로 시장 개척 및 선점, 편리성 추구 성향을 고려

하여 건강과 맛뿐 아니라 배달서비스 제공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제주 전통식품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통한 상품화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발효식품의 수출전략상품으로 개발, 전통주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제도 도입으로 세계적 명품 육성, 전통식품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및 문화콘텐츠 개발로 식품 홍보 등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와 같이 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식품분야 R&D 투자확대로 최고의 식품제조 가공기술을 확보해야 하며, 식품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수출지향성 산업으로 육성해나가야 한다. 식품산업 클러스터는 식품 품질 안정, 기능성 평가 등 핵심 R&D 기반과 민간기업의 생산활동을 위한 임대형 공장, 체험과 쇼핑이 가능한 전시관과 전문식당 조성 등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제주 농·수·축 특산물을 활용한 산학연 기술 커뮤니티 공동연구를 수행할 (가칭)식품산업화 연구센터를 설립, 향토주 테마파크 조성, 수산식품 HACCP 산지가공시설 지원, 특산 농·수·축산물 명품 클러스터, 농·수·축산식품산업 Valley 조성 등도 필요하다.

나. 한방·바이오 융합산업

한방·바이오 융합산업은 제주의 우수 생물자원을 활용한 한의약산업 부문과 기능성 식·의약품·화장품 개발 등 건강·뷰티산업 부문의 융합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2008~2017년을 기간으로 하는 한의약 R&D 중장기 육성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10년간 총 5,396억 원을 투입, 한방산업 국내시장 규모를 11조 원대로 키우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또한 제주지역 약용식물 재배면적도 2002년 141ha에서 2005년 229ha, 2007년 287ha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경면 저지리에 약용작물 가공 및 유통센터가 지난해에 준공되어 200여 농가

와 계약재배한 약용작물 30여 개 품목을 한약재로 가공해 전국에 납품하고 있다.

이 같은 여건을 활용하여 한방·바이오 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한의약 녹색치료 복합센터 설립을 통한 한의약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하며, 약용작물 재배면적 확대 및 더덕, 오가피, 복분자, 도라지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재배품목의 다양화도 필요하다.

부분별로 보면, 한의약산업에서는 약용작물 재배단지 육성사업 등 재배기반 확립 및 점진적 확대가 요구되며, 우수 약용작물 발굴 및 증식 보급과 기술지원, 제주한의약산업육성위원회(가칭) 구성 운영 및 한의약산업 발전 로드맵 작성, 한의약자원을 활용한 식·의약품·화장품 개발, 제주약초 브랜드 개발·육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건강·뷰티산업에서는 제주 건강뷰티 벨리 조성, 제주 테크노파크 출범으로 신약개발 지원기능 강화하고 제주자생 식물자원을 소재로 천연물 신약 소재 개발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다. 물산업

제주지하수는 안전한 물로 평가되고 있다. 내륙지방의 지하수와는 달리 라돈·우라늄 등 방사성물질이 거의 검출되지 않으며, 특히 제주도에는 연수(soft water), 바나듐워터, 천연탄산수, 고미네랄워터, 용암해수 등 다양한 수질의 지하수자원이 부존하고 있다. 게다가 청정환경 유지로 고품질 지하수자원의 산업화에 최적조건을 구비하고 있어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물산업 성장동력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제주지하수의 세계적인 프리미엄 브랜드 육성전략이 필요하다. 세계적 브랜드 육성은 제주 지하수 수질의 우수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경쟁제품과의 차별화된 이미지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주워터의 수질화학적 특성과 생리효능 평가, 인체 적용성 및 안전성 평가 등을 토대로 제

주워터 수출 전용 브랜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워터 수출 전용 브랜드 취수정 개발, 수출 브랜드 용기 및 패키지 디자인 개발, 병입수 제품 관능시험 및 소비자 선호도조사, 수출대상 국가 수질 국제인증 획득, 국내외 홍보마케팅 등의 사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제주워터클러스터 기반 구축과 제주물산업 연구센터 건립 등 중장기 물산업 성장기반도 갖추어나가야 한다.

제주지하수를 활용한 프리미엄 맥주의 개발도 물산업 육성의 한 방편이라 하겠다. 제주지하수와 제주산 농산물을 활용한 (가칭)프리미엄 '제주맥주' 제품 개발을 통하여 향토기업 육성과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프리미엄 맥주의 개발을 위해서는 제주산 맥주보리 맥아 및 몰트 제조기술 개발, 소규모 시험시스템 운영을 통한 프리미엄 맥주 시험제조, 대량 생산공정 확립 및 품질 안정화, 부산물을 이용한 사료·비료 등 친환경 순환농법 제품 개발 등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맥주공장 건설로 향토기업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물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제주특화 스파·테라피 프로그램 실용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제주지하수와 제주 특산 생물·비생물 자원을 활용한 특화된 스파·테라피 제품을 개발하여 실용화하는 것으로 의료관광상품으로 육성하여 '건강+휴양' 이미지 구축 및 향토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제주지하수의 수치료 효능 및 안전성 평가, 주요 질환자 및 일반인 대상 메디컬·클리닉 프로그램 개발, 물산업 클러스터에 제주워터 스파테라피 센터 건립, 관련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이 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라. 신재생에너지산업

2009년 말 현재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은 81.3MW로 전체 발전설비의 12.9%를 차지하

고 있으나 발전량은 전체의 3.2%에 그치고 있다. 이는 화석에너지의 비중을 현재 83% 수준에서 2030년에 61% 수준까지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현재 2.4%에서 11%로 확대하여 저탄소 에너지의 비중을 높여나간다는 정부의 계획과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30%로 확정한 것에 고려할 때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 하겠다. 이에 제주도에서도 2005년 대비 2012년까지 10%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13년 10%, 2050년 50%로 확대해나간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 같은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제주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성장산업으로 전략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수출산업으로 집중 육성(2015년까지 40조원 투자)에 따라 제주지역에 풍부한 바람, 태양, 바이오, 수자원, 지열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를 발굴하여 사업화하고 관련 부품제조 및 유지관리업 등 그린산업 육성을 통해 세계적 녹색성장 모범도시로 발돋움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국내외 부품제조업 등 유망기업 유치, 신재생에너지원별로 배분하여 다수의 국내외 유망기업을 중심으로 비즈니스지원센터 설립 및 도내기업 멘토링을 통한 육성, 도내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워크숍 주기적 개최, 풍력·태양광·태양열·소수력·지중공기열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사업화 등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저탄소녹색도시 초석을 위하여 환경·경관을 고려하여 풍력 등 에너지 지구단위 또는 해상판지 조성도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양에너지, 바이오메스 등 미활용에너지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기업을 육성해나가야 한다.

마. 프랜차이즈산업

정부에서는 지난해 프랜차이즈산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가맹점 1천 개 이상의 건설한 국내 브랜드

100개 육성과 세계 100대 프랜차이즈 기업에 국내 3개사 이상 진입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2008년 기준 프랜차이즈산업 매출액이 77조 원에 고용 100만 명에 이르는 등 지속 성장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제주지역에서는 프랜차이즈산업과 관련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해왔다. 따라서 청정제주의 특산물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고 프랜차이즈산업에 접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마썸, 해올렛, J마크 등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공동브랜드 및 품질인증 마크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며, 민간브랜드의 육성도 요구된다. 제주 프랜차이즈 전문 법인 설립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해관계자인 제조업체, 생산농가, 유통업체 등이 주축이 되어 전문법인을 설립하고 프랜차이즈는 시범적으로 서울 등 대도시에서 운영하여 발전 가능성을 타진해나가야 한다. 아울러 고부가가치형 프랜차이즈 창업 및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기업 및 생산자의 매출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고용창출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4. 결론

지금까지 향토자원을 활용한 제주지역 성장산업으로 5가지를 상정하고 육성과제를 검토하였다. 하지만 각각의 성장산업들은 현상황에 비추어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식품산업 육성의 경우 핵심역량의 미흡으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식품관련 업무가 여러 실과로 분산되어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최근 식품산업육성을 위한 Working-Group 구성에 따라 식품분야 R&D 투자확대와 최고의 식품제조 가공기술 확보가 선행되도록 해야 하며, 식품관련 전담부서 신설로 전문인력

확보, 예산투자, 관련 기관·업체와 협조체제 구축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물산업 부문에서도 육성사업을 총괄 기획·조정할 수 있는 조직체계 및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한방·바이오 융합산업 부문에서는 한의약 녹색치료 복합센터 구축과 관련 중앙부처의 기반구축 지원 사업계획이 미흡하여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미래제주형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프랜차이즈산업의 경우 대부분의 고용창출이 타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주출신 인력의 활용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신재생에너지산업에서는 도내 기업의 영세성으로 투자규모가 작아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려운 만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향토자원 성장산업 육성에는 이 같은 다양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제주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미래산업을 창출하는 것인 만큼 도민의 역량을 모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